

‘광주형 일자리’ 다시 원점에서 출발

광주시-현대차 냉각기 갖고
 다음주부터 재협상 돌입할 듯
 예산안 처리까지 합의 안되면
 관련사업 예비비 편성 요청



광주형 일자리 조인식 무산 아쉬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조인식이 무산된 6일 오전 행사 관계자들이 광주시청 1층에 마련된 행사장을 철거하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안한 최종안에 현대차가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조인식이 무산됐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
 리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관련기사 3면〉

현대차가 지난 6월 1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뒤 지역노동계와 현대차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온 광주시가 투자협약서 체결 목전에서 접점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무산 위기에 몰렸다. 노사상생모델로서 노사민정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투자자인 현대차 그리고 노사민정의 핵심인 지역노동계의 이해타산 속에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지속가능성과 경영 안정성, 지역노동계는 현대차 노조 및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는 명분과 노동계의 실리 등을 우선하면서 중간에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광주시를 압박했다. 상호 불신하는 양측의 논리와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애초 광주시의 선택지는 좁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적정임금과 적정근로시간 등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를 했고, ‘노사상생협회의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이라는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조항만 문제가 된만큼 현대차와 지역노동계를 계속 설득하기로 했다. 또 2019년 예산안의 국회 처리시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할 방침이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청와대는 관련 주체들의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안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 삼아 경제 문제를 돌파하려했던 정부-여당에도 상당한 충격파를 안긴 것이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6일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협상을 12월안에 끝내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와는 잠시 생각기를 가진 뒤 다음주부터나 실무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협상단을 이끄는 이 부시장은 이날 광주시 기자회견에서 감담회를 열고 “그 동안 대부분의 문제에서 합의를 이뤘고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상생협회의 결정사항 유효기간’만 남았다”며 “이는 나중에 생길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주사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은 “신설 법인 노사상생협회의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지로 한다”고 규정해 있다. 이를 두고 지역노동계는 3-5년간 임금단체협상을 유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강력 반발했다.

이 부시장은 “35만대 생산까지 임단협 유예” 논란과 관련해 “35만대 부분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여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해석의 차이는 오랜 노사 갈등과 불신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유치추진단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놓고 다시 수정한 것에 현대차가 불만을 나타냈는데, 광주노사민정협의회는 투자유치추진단의 상위기구이자 법정기구”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시대의 명령’이라며 끝까지 성공시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 시장은 SNS를 통해 “투자협약 체결로 아침부터 분주했었는데, 참으로 아쉽다”며 “어느 한쪽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판할 일은 더욱 아니며, 외줄타기 곡예사의 심정으로 조심조심 한발 한발 나아가다 보면 ‘협상 타결’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일 투자협약식이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낙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실망감이 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몇 차례 합의에 도달했다가 안 되고 했는데, 정말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공대 설립부지 시·도 3곳씩 추천 한전, 평가 절차 거쳐 내년 1월 확정

한전공과대학(케코텍·Kepco Tech) 입지 선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천권을 갖는다. 한전이 입지 평가기준을 제시하면 시·도가 합당한 부지 3곳씩을 추천하고, 한전은 평가 절차를 거쳐 최적지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정부 서울청사 국가균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각각 3곳씩 추천받는 방안이 확정됐다. 한전이 시·도에 3곳씩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입지 선정과 관련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구성·기준·심사 등 3개 소위원회로 구분한다. 입지 선정은 시·도가 추천한 6곳의 후보지를 놓고 기준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서면·현장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마무리

리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은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년 한전공대 개교를 위해서는 늦어도 2020년 전반기 착공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학교법인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 진행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용지보상 절차 진행, 교통·도시가스, 상·하수도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공대 착공 시점과 발맞춰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정책회의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공대 설립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에 대해 정부·지자체·한전 등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실무위를 꾸려 교육부·산자부 등 해당부처 실무진과 적극 협의하라는 주문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대설 한파 ... 첫눈 온다

서해안 대설특보 가능성

절기상 대설인 7일 강추위와 함께 광주·전남에 첫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광주·전남은 찬 대륙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6일 예보했다.

이날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1도로 전남보다 5도 이상 떨어져 종일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지역 역시 아침 최저기온은 2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5도로,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별 차이가

없지만 낮 최고기온은 곳에 따라 평년보다 최대 10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새벽부터 시작된 눈은 주말인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내륙권 1~5cm, 목포·영광·함평 등 전남 서해안 2~7cm수준이다.

기상청은 곳에 따라 대설특보가 발령될 정도로 적설량 변동 가능성이 있고, 적은 눈이라도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사고 위험이 높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추위는 10일까지 이어지다 11일 평년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청와대 “협상 주체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

사업 불발에 아쉬움

청와대는 6일 사실상 타결되는 것으로 보였던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이 난항을 겪게 된 것에 대해 “협상 주체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노사 양측을 설득하는데 나설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광주형일자리 협약 타결을 전제로 조인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검토했었

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결을 전제로 검토 중인 일정이었는데 어제(노사 간) 타결이 안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

리 사업은 그동안 협상을 거쳐 이점을 좁혔고, 이날 투자협약식을 열어 타결을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전남 노동계가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에 반발하고,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의 수정안을 내놓자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측에서 수정안을 거부하는 등 협상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돈 뜯은 ‘보이스피싱범’ 김씨는 누구? ▶6면
 신랄도유람 -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내년 7월 ‘평화의 물결 속으로’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겨울 남도의 선물

남도 한바퀴

Jeollanamdo Bus Tour

탑승장소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송정역

탑승요금 9,900원

전용콜센터 062)360-8502

검색창에 검색

<http://citytour.jeonnam.go.kr>

전라남도